

패자.. 부.. 활.. 전, 오해와.. 진실..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바뀌면서 기업으로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엄청난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모든 기업들이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시장의 요구를 모두 감내할 재간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탄생한 기업군이 바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을 지닌 벤처기업이다.

글 _ 오형근 (협회 상근부회장)

벤처, 실패하며 시장 요구를 수
 그동안 많은 벤처기업이 스러져갔다. 지금도 실패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천명하자 혹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벤처 패자부활전'에 대한 의구심이 도도록 하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낭패를 본만큼 벤처인들이 감내해야할 몫이다. 그럼에도 벤처 스스로 패자부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척박한 경제 환경속에서도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시장을 보자. 최근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가 거의 없다. 특히 기술창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창업하여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하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누가 창업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도 정확히 보자. 앞으로는 일본의 기술력에 가로막혀 어찌지 못하고, 뒤로는 중국으로부터 바로 턱밑까지 치받히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신기술개발에 용감히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젊은 기업인을 양성하는 일이다. 또 뿔성부른 기업을 크게 키우는 일이다. 즉, 젊은이들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는 꿈을 갖도록 추동해야 하는 것이다.

실패도 소중한 사회적 자산
 꿈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은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여 도전하지 않으면 희망도 자라지 않는다. 이제 우리사회도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다. 실패하며 배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충만하면 이

공계 기피현상이나 반기업정서 등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주창한 '벤처 패자부활'은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창업부터 기업경영, 좌절, 실패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갖가지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그 핵심은 특정 벤처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의문은 바로 해소된다.

패자부활전의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을 인정받은 벤처인이 해당한다. 협회는 워크아웃을 인정받은 벤처인이 도덕성 평가를 신청할 경우 즉, 과거에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다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워크아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는 만큼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 수여는 있을 수 없다.

투 명 한 시 스 템 구 축 으 로 도 덕 성 검 증

한편, 협회로부터 도덕성 검증을 거친 벤처인에 대하여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 등은 자체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즉, 기보나 신보가 도덕성을 검증받은 벤처인이라고 하여 무작정 지원할리 만무하다.

또다른 의문은 협회가 검증기관이 될 경우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협회가 업계상황을 잘 아는 만큼 해당 기업인을 검증하는 데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협회는 기존의 벤처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시민단체, 학계, 업종별 전문가 등을 대거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덕성 검증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모든 시선이 '벤처 패자부활전'에 쏠린 이유도 '도덕'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 패자부활전이 시도된 적이 없는 만큼 당분간 의구심은 상존할 것이다.

잠시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자. 경영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미국 기업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나스닥시장에 상장하기까지 생존율은 5%에 못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은 어찌 되었을까. M&A를 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실패했을 것이고, 이를 경영한 기업인은 패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패자의 경험을 높이 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창업에 도전할 때 오히려 후한 점수를 부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 결국 패자부활은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 회 적 성 숙 위 해 패 자 부 활 도 입 할 때

우리도 패자부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대상이 왜 하필 벤처인인가. 시스템을 적용할만한 다른 산업군도 많을 것이다. 일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둘러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벤처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과 같은 지식산업 사회에서 시장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다행히 벤처기업은 어느 산업군보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벤처기업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데, 이 때 쌓은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자는 것이 '벤처 패자부활전'의 핵심이다.

패자부활전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벤처인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이 패자부활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패자의 자산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유용한 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너그러워 관용과 배려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